빈곤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빼앗긴 권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끔찍한 지진 때문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은 하루 아침에 집을 잃었어요. 전기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텐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폭력을 앞세우며 그곳에서조차 떠나라고 협박해요.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나와 동생은 학교에도 갈 수 없어요. 정부는 지진으로 집을 잃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 거죠?"

2010년 아이티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 20만 명이 사망했고, 2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집을 잃고 안전하지 못한 텐트에서 살아가지만 이마저도 쫓겨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임시 대피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티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활환경, 교육, 위생시설, 직업 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엄마 배 속에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산모나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멀리 있는 병원에 찾아가더라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해요.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엄마를 잃게 될까봐 무서워요."

1분당 한 명, 한 해 5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제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곤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거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낼 수 없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은 이러한 죽음을 막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국가는 우리 동네에 물도 전기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제가 더럽다고 놀리고 따돌리기도 하고, 선생님조차 구박하고 혼내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로마족은 '집시'라고 알려진 소수민족으로, 대부분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고, 학교에 다니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종종 괴롭힘과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로마족 사람들은 차별 때문에 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같이 슬럼*에 사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게으름뱅이에다,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편견과 차별 속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늘 폭력에 시달리려야 하는 건 우리인데 말이죠. 우리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사는데, 밤이 되면 납치나 성폭행을 당할까봐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엄두조차 못 내요."

현재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슬럼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전쟁이나 자연재해(지진, 태풍, 가뭄 등), 사회에서의 차별이나 따돌림 등의 이유로 집을 빼앗겨서 슬럼에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슬럼 주민은 안전한 집에 살지 못할 뿐 아니라 깨끗한 물, 위생시설, 적절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범죄조직의 폭력과 위협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특히 슬럼 지역의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슬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정부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슬럼(slum)
: 대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으로, 집, 생활환경, 수도 시설 등이 열악하며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빈곤과 인권은 어떤 관계일까요? 빈곤과 인권을 이해하는 키워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 단어 목록에서 골라 채워주세요.

빈곤=[ ]

전 세계 모든 국가에는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가장 부유한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빈곤은 단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고,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학교와 병원에 갈 수 없으며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 ], [ ], [ ], [ ], [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불안하며 매일같이 [ ]과 [ ]를 당합니다.

빈곤은 빠져 나오기 어려운 감옥

빈곤은 [ ]의 탓이 아닙니다. [ ]가 낳는 불평등과 차별로 사람들은 빈곤해지고, 빈곤한 사람들은 더 심한 불평등과 차별을 겪습니다. 빈곤의 상황은 [ ]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은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람들은 빈곤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서 빈곤을 감옥이라고도 합니다.

[ ]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 ] 보장 없이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줄 [ ]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빈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권에 [ ]을 갖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빈곤이라는 커다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용: 국제앰네스티 〈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나의 권리, 나의 존엄함을 존중해요 〉 정리

AMNESTY INTERNATIONAL

개인, 관심, 교육, 무시, 사회, 악순환, 안전, 의료, 의무와 책임, 의식주, 인권, 인권침해, 직업, 차별, 행동

인권이란?

인권은 성별, 나이, 국적, 종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조건 없이 누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 세계인권선언!

1948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하고 전 세계 대표들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꿈꾸며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명, 자유, 평등, 의식주, 사회 안전, 일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구별 인권약속, 세계인권선언' 스티커를 참고하세요

새천년개발목표란?

지구의 빈곤을 없애기 위한 전 세계의 약속, 새천년개발목표

빈곤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2000년 9월 전 세계 대표들은 유엔에 모여 전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없애기 위한 전 세계의 약속, 〈새천년개발목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직도 전 세계에는 빈곤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인권보호와 존중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는 빈곤 없는 세상

다음에 소개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는 빈곤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상황이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빈곤이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빈곤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의 결말을 만들어보세요.

Step1_각 모둠별로 이야기를 읽고, 빈곤한 상황이 주인공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토론해 봅니다.

Step2_각자 하나의 이야기를 골라 권리를 되찾은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과 글로 이야기의 결말을 만들어보세요.

※ 액션카드 활용

두근이, 똑똑이, 쌩쌩이가 빈곤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의 결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1] 두근이 이야기

두근이가 사는 마을에 어느 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두근이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집도, 학교도, 일자리도 전부 잃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두근이 가족은 임시로 마련된 텐트로 피난을 갔지만, 그곳에는 먹을 음식과 물이 없어서 밥을 굶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두근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직장을 구하러 나가지만, 직업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이 곳에는 학교나 병원도 없어 두근이는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두근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원래 살던 마을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고, 임시로 사는 텐트마저도 이제 없앤다고 해요. 갈 데가 없어 텐트에 남아있지만, 매일같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떠나라고 협박해서 두려워요. 아무리 경찰에게 이야기해도 경찰은 무시하기만 하죠. 두근이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행복했던 삶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

액션 1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님께 편지쓰기!

<SHARE>새천년개발목표</SHARE> 라는 약속을 점검하기 위해 각 국가의 대표들이 다시 유엔에 모입니다.
유엔에 모인 전 세계 대표들이 빈곤을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해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전 세계 약속에 인권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편지를 써주세요.

인권의 열쇠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유엔(UN)이란?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액션 2 내가 그리는 빈곤 없는 세상

옆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 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세요.

-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해주세요. act4rights.amnesty.or.kr
- 여러분의 그림과 글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인권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전국의 어린이가 함께하는 '빈곤 없는 세상'그림 전시에 여러분의 그림을 보내주세요.

※ 액션카드를 활용하세요!
액션 1, 액션 2 활동이 끝난 후 여러분의 편지와 그림은 모아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8안길 31 금악빌딩 3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우 121-888)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or.kr

[이야기 2] 똑똑이 이야기

똑똑이는 11살 로마족 소녀에요. 똑똑이의 가족은 도시의 바깥쪽에 버려진 땅에서 오랫동안 텐트 같은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어요. 똑똑이의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아 매일 매일 일거리와 먹을 것을 찾아야 해요. 집에는 수도시설이 없어서 가까운 시냇가에서 깨끗하지 않은 물을 길어와 사용하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 여러 집이 임시로 연결한 전기를 나눠 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똑똑이는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을 구하기 힘들어 씻지 못했는데 친구들은 똑똑이가 더럽고 게으르다고 비웃고 괴롭히며 따돌려요. 아이들은 종종 "로마족 사람들은 더러워" 같은 말을 하곤 해요. 선생님마저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똑이를 차별하죠. 똑똑이는 학교에 갈 때마다 상처를 받지만 학교마저 가지 않으면, 친구도 없고 앞으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을 것만 같아 억지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 3] 쌩쌩이 이야기

쌩쌩이의 엄마가 쌩쌩이 동생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쌩쌩이 마을에서는 임신하면 즐겁게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쌩쌩이 마을의 가까운 곳에는 병원이 없어서 동네의 많은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거나, 병원에 가려고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가다가 죽는 일도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쌩쌩이의 가족은 병원비를 부담할 돈도 없고, 먼 곳에 있는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어요. 병원까지는 가는 택시비를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인걸요. 한번도 진료를 받지 못한 쌩쌩이의 엄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일하러 나가요. 당장 생활비와 병원에 가기 위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쌩쌩이는 엄마와 새로 태어날 동생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와 동생 모두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